

태풍이 야기한 비르지니의 참담한 죽음에, 사람들은 섭리가 과연 존재하는지, “너무나 그악하고 그저 부당하기만한 악”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라 투르 부인이 비르지니를 유럽으로 보내고, 비르지니가 에테를 떠난 것을 죄라고 할 수 있을까? 생제랑호가 난파당했을 당시, 마지막으로 남은 신원은 비르지니가 익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옷을 벗길 재촉하지만, 비르지니는 끝내 옷 벗기를 거부하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다. 비르지니의 이 선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덕성스레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격변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악한 이들의 음모와 꾀박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생피에르는 이렇듯 덕성으로 가득한 죄 없는 자들의 죽음을 무대에 올려놓음으로써, 자연과 덕성에 따른 삶이, 행복의 유일한 가능성이 시련에 처할 때조차 이를 보상해주고 정당화해주는 천상의 행복의 조건을 보여주어, 그런 부당함에 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르지니의 죽음이라는 비극은, 엄밀히 말해 이승과 저승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하고, 이를 해석하는 노인의 장광설은 일종의 도덕적 위안으로 결말을 송고하게 감싼다.

사랑은 죽음 안에 좌초하지만, 그곳에 가장 솔직한 감정을 맡길 수 있으며, 철학과 신비주의의 끄트머리에서도 오로지 허구만이 허용할 수 있는, 빛의 입자처럼 순수한 영혼이 영생을 누리는 사후의 삶과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지